

선교지의 개혁주의 교회 건설을 위한 기초 자료들

김재수¹⁾ 칼빈프로테스탄트 신학교 교수

I. 서론

II. 본론

1. 칼빈주의적 개혁주의 교회 건설을 위한 입문서

- (1) 개혁주의 교회의 연합을 위한 새 문서들
- (2) 웨스트민스터 표준서

2. 이들 입문서의 중요성

III.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월간 고신 2000년 2월호는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한 선교사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한국의 어느 교회가 선교비로 아프리카 가나에서 20여개의 교회당을 건축하였는데 지금은 모두가 다 모슬렘의 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보도에 의하면, 아프리카에서의 개혁주의 교회 건설을 위한 한국 교회의 선교 헌금이 결국에는 아프리카에서의 이슬람교

1) 영남대와 동 대학원에서 물리학 전공(이학석사)하였고, 고신대 신대원졸(신학 석사, M Div)한 후 남아공 스텔렌보쉬대 석사 박사(신약전공)학위를 취득하여 현재 총회파송선교사로서 남아공 칼빈 프로테스탄트 교회 및 총회신학교 강사로 재직 중이다.

의 확장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남아공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봉사하고 있다. 한 번은 구역 예배 시간에 구원에 대한 주제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중, 필자는 참석자 중의 삼분의 일만이 "믿음에 의한 구원"을 알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경험 때문에, 필자는 필자의 개혁주의 교회 건설을 위한 목회 계획을 스스로 다시 평가하게 되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2년째 하이델 베르그 교리서를 매주마다 전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개혁주의 신학 노선을 취하고 있고 따라서 개혁주의 교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 역시 개혁주의 교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것이다. 굳이 개혁주의 교회 건설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한국 교회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에 근거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고신 교회와 고신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은 개혁주의 교회 건설을 목표로 할 것을 문서에서 기록하고 있다. 학생 신앙 운동의 강령에도 이것이 명기되어있다. 요약하자면, 개혁주의 교회 건설은 한국 교회의 지상의 과제이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개혁주의란 용어가 광범위한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원래는 개혁주의 혹은 개혁주의 교회란 단어는 로마교 신학을 거부하는 개신교 신학을 지칭하다가, 이제는 로마교와 알미니안 주의와 루터교를 포함한 신학과 이들의 신학 노선을 취하지 않는 교회들을 일컫는다. 그러나 이 개혁주의 내에서도 동일한 신학만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신학의 다양성이 개혁주의 내에 존재하고 있다.

칼바르트는 개혁주의 신학자라고 분류되어진다. 혹자는 그를 신정통주의라고 하고 혹은 복음의 사회 참여를 주창하고 나섰다고 해서 현대 신학자라고 분류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전 세계의 신학계에서는 칼바르트를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라고 부른다. 그는 루터가 가졌던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히틀러 정부에 대항한 그의 바르멘 선언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종교 개혁 이후에 450년간 신학은 교회의 포로였다고 주장하면서 루터가 외면했던 복음의 사회 참여를 칼바르트는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혁주의 전통을 부인한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

씀하실 경우에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다(Young 1957:227-230). 그에의하면 성경은 정확 무오한 것이 아니라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Youngblood 1984:23). 게다가 칼바르트는 인간의 만인 구원설을 주장한다 (Green 1991:31-32).

그러나 한국 교회가 말하는 개혁주의 교회는 이와는 다르다. 우리는 이를 칼빈주의라고 부른다. 사도들과 성경의 교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했던 어거스틴과 초대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칼빈이 조직적으로 체계화한 교리이다. 칼빈주의는 인간 칼빈에 권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의 권위에 의존한다.

개혁주의 교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교회와 특히 선교지로 나가는 선교사들은 칼빈주의적 개혁주의 교회 건설을 위한 기초 공사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에서 개혁주의 교회 건설을 위한 기초 공사에 사용될 자료를 소개하고, 현대의 개혁주의 교회를 위한 이 입문서들의 중요성을 논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칼빈주의적 개혁주의 교회 건설을 위한 입문서

개혁주의 교회 건설을 위해서는 교인들에게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쳐야 한다. 정확 무오한 성경이 절대적인 교재인 것만은 사실이나,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라기 보다는 복잡한 일이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서 개혁주의 교회 건설을 위한 “입문서”들이 많이 있다. 필자는 여기서 개혁주의 신학 입문서 혹은 개혁주의 조직 신학의 요약서라고 불리울 수 있는 두 종류의 서적들을 논하고자 한다. 하나는 개혁주의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연합을 위한 세 문서”(Three forms of Unity)와 다른 하나는 “웨스트 민스터 표준서”(Westminster Standards)이다. 전자는 “개혁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전세계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채택하는 교리서이며, 후자는 장로교에서 채택하는 교리 표

준서이고 대부분의 한국 교회도 이를 교리서로서 채택하고 있다. 이 두 종류의 입문서는 칼빈주의를 근거로 한 개혁주의의 고전이라 할 수 있다.

1-1. 개혁주의 교회의 연합을 위한 세 문서들: 개혁주의 교회라는 명칭을 가지는 대부분의 교회는 "연합을 위한 세 문서"(Three forms of Unity)를 기본 교리서로서 사용하다.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이 신앙과는 다른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연합"이란 단어를 사용하여서 "연합을 위한 세문서"라고 부른다. 이들 세 문서들은 벨직 고백서(Belgic Confession of Faith), 하이델 베르그 교리서(Heidelberg Catechism), 그리고 도르트 신경(the Canons of Dordt)이다. 이 세개의 문서들을 작성된 시대 순으로 다루고자 한다.

(1) 벨직 고백서(Belgic Confession)

벨직 고백서는 개혁주의 교회에서 사용하는 "세개의 표준서" 중에서 가장 일찍이 작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 고백서는 당시 네델란드 남부 지역인 현재의 벨기에에서 작성되어졌다고 해서 벨직 고백서로 불리운다. 한글 사전에서는 '벨기에 신앙 고백서'로 기술되었다.

벨직 고백서 저자는 드 브레스인데 그는 네델란드 남부 지방인 오늘날의 벨기에 지방의 개혁 교회의 목사이며 순회 설교자였다. 이 고백서를 작성한 동기는 다음과 같다. 16세기에 네델란드는 스페인의 통치 하에 있었고, 스페인의 로마교 정부는 네델란드 개혁 교회에 심한 핍박을 가하고 있었다. 이 핍박을 피하며 동시에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재침례주의자와 같은 반도들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한 참된 교인이면 법을 준수하는 시민임을 변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1561에 작성되었다(이것은 벨직 고백서 제 36조에 기술되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이 고백서 사본 한 부가 당시 스페인 왕 필립2세에게 전달되자 왕은 대노하였고, 그는 고백서에 나타난 성경적 진리를 부인하는 대신에 "(개혁주의 교인들을) 채찍질하며, 혀를 자르고, 입에 재갈을 물리우고, 온 몸은 불태우리라"고 반응하였다. 그 이후로 개혁주의 기독교인들은 무참히 살해되었으며, 드 브레스도 1567년 순교하였다. 이 고백서는 스페인 왕을 설득

시켜서 핍박을 피하는데 성공하지는 못하였으나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기독교인들을 가르치기 위한 자료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인내하는 백성들의 고백이 되었다.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we believe and confess)라는 이 고백서의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벨직 고백서는 개인 신앙의 확신에 찬 고백임을 알 수가 있다.

1618-19년에 열린 도르트 회의에서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벨직 고백서를 개정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그 회의에서 이 고백서를 개정 없이 개혁주의 교회의 표준 교리서로 지정하였다. 그 이후부터 이 벨직 고백서는 개혁주의 교회의 "연합을 위한 세 문서"(Three forms of unity)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벨직 고백서는 37개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이 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론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도 돌아오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이 순서는 성경의 순서와도 같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순서와도 같다. 워필드는 기독교의 진수를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있다고 했으며 바빙크는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론이며, 나머지 모든 교리는 이를 설명하는 것이라라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중심이시고 출발점이시며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결정된다. 칼바르트도 하나님만이 인간의 관심이며, 그분을 아는 지식이 모든 기독교 교리와 신앙 생활의 전제요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하이델베르그 교리서 보다 더 조직적이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하나님과 그의 계시 수단(제 1조 제 11조)을 기록하고 있다. 로마교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장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그러나 고백서 제 1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한다. 제 2조부터 제 7조까지는 성경의 권위, "성경의 충분성"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제 10조는 예수님의 신성과 제 11조는 성령님의 신성을 다루고 있다.

② 창조, 섭리, 타락과 그 결과(제 12조-제 15조)을 다룬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과의 차이점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라는 것이라라고 기술한다. 그리고 12조에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기술한다. 제 14조는 인간의 자유 의지를 부인하며, 그 대신에 인간의 전적 부패를 다루고 이로 인한 인간의 원죄를 제 15조에서

기술하고 있다. 이는 원죄를 부인하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는 정반대의 입장이다.

③ 선택과 타락한 인간의 회복(제 16조-제 17조)을 취급하고 있다. 제 16조에서는 칼빈주의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유기를 설명하며 그리스도 밖에서는 지옥만이 있다고 한다. 제 17조에서는 인간의 회복을 기술한다. 이 장은 인간의 구원의 약속인 "복음의 첫 약속"(the first promise of the gospel) 혹은 "어머니 약속"(the mother promise) 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3장을 포함하고 있다.

④ 그리스도(제 18조-제 21조)를 다루고 있다. 제 18조는 성육신에 대해서, 제 19조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하여, 제 20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제 21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취급한다.

⑤ 구원의 축복(제 22조-제 26조)을 다룬다. 제 22조는 "믿음에 의한 칭의"을 다룬다. 이조에서는 믿음의 원천은 성령 하나님이며, 믿음의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embrace) 하나의 "도구"(instrument)로서 기능을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분은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충분하고도 완전하게 역사하신다. 그리고 믿음에 의한 칭의란 스스로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롭다하심을 지칭한다. 제 22조는 칼빈주의 개혁주의 믿음에 대해서 가장 훌륭한 정의를 내려준다. 제 24조에서 칭의란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의 의로 간주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린다. 죄인을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있으며 이 칭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하나님에게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리고 인간을 죄의 두려움 속에서 자유롭게 하신다. 그리고 행위 없는 믿음이 아니며, 여기서 행위란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증명이다.

⑥ 교회와 은혜의 수단(제 27조-제 35조)을 다룬다. 제 27조는 참된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정의하며 이 교회는 창세기부터 존재해 왔다고 기술하고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제 28조). 제 29조는 참된 교회의 삼대 지표를 다룬다. 첫째는 복음의 순수한 선포이고, 둘째는 성례전의 준수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권징이다. 이는 교회에 대한 훌륭한 정의이다. 그

러나 오늘날 소위 파라 처치도(para-church)교회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교회 직분자들은 정당한 방법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질서가 있는 가운데서 선택해야 하며 그리고 교인들은 이들 직분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위임한 사명을 수행하므로 존경해야 하며, 특히 목사 와 장로들은 영적인 지도자임을 명기하고 있다.

⑦ 시민 정부와 종말론(제36조-제 37조)을 다룬다. 제 36조에서는 시민 정부에 대항하는 재침례주의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바, 이는 기독교인들은 국가 정부의 권위를 인정할 것을 다룬다. 종말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목적을 설명하는데 이는 심판과 회복이다. 이 결과를 통하여서 최종적인 분리가 일어날 것임을 경고한다.

(2) 하이델 베르그 교리서

하이델 베르그 교리서는 1559년에서 1576년 사이 당시 독일의 한 지방인 플라티네이트의 수도인 하이델 베르그에서 독일어로 작성되었다. 이 교리서는 또한 플라티네이트 교리서라고도 부른다. 루터가 1518년 하이델 베르그를 방문하여 강의한 적이 있으나 루터가 죽은 이듬 해인 1546년 플라티네이트에 종교 개혁이 소개되었다. 멜랑크톤이 그 지역의 통치자 프레드릭 2세로부터 그의 고향 하이델 베르그 신학교의 교수직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는 이 교수직을 거절하고 대신에 대학을 개혁주의에 근거하여 개혁하고 1530년, 그가 작성한 아우그스버그 고백서를 이 시의 기본 교리로 받아들여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1540년에는 이를 수정하였다. 멜랑크톤이 이 지방의 종교 개혁의 기수였다.

하이델 베르그의 교리서는 당시의 하이델 베르그의 종교 개혁을 위해서 헌신했던 통치자 오토헨리의 보고서에 기인한다. 오토헨리는 플라티네이트의 프레드릭 2세의 뒤를 이은 통치자 (1556-1559)로서 로마 교황에 반대하여 플라티네이트에 복음의 자유를 선포하였다. 그리고 로마교의 모든 미신적인 요소와 십자가를 제외한 모든 물건들을 교회당 안에서 치우도록 하였다. 그리고 세 검사관을 지명하여서 지방 교회로 파송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첫째는 견고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견고한 교회 행정부가 필요하

며, 둘째는 지방 교회의 교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하며 이들의 경건한 믿음을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보고를 토대로 하여서 오토 헨리는 이들 세 검사관에게 교회법을 제정하도록 하였고 청년들에게 성경의 교리들을 가르치도록 지시하였다. 하이델베르크에 본격적인 종교 개혁이 시작된 것이다.

후계자 없이 오토헨리가 죽은 후에, 프레드릭 3세가 그의 대를 이어 1559년에 플라티네이트 지방의 통치자로 자리를 승계하였다. 그는 원래는 로마교 신자였으나 루터교 출신인 그의 아내의 영향으로 개신교로 회심한 기독교인이었다. 오토헨리의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서 청년들에게 기존의 교리서를 지침서로 하여서 가르치고 있었지만 이 교리서는 하이델 베르크 상황에는 맞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프레드릭 3세는 젊은 두 신학자에게 새로운 교리서를 작성할 임무를 부여하였는데, 이 두 신학자는 사가라우스 울시누스와 카스팔 오레비아누스이다. 당시 울시누스는 28세로 하이델 베르크 대학교 신학교 교수였으며, 하이델 베르크의 주요 집필자이다. 오레비아누스 26살의 목회자였다. 그는 탁월한 설교자였고 교회 행정가였다. 교리서의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작성하였다. 이들은 이 교리서를 작성할 때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으로 사용되어질 것을 의도했다.

- 청소년들을 위한 성경 공부 교재
- 플라티네이트 지방의 목회자와 교사들을 위한 교재
- 당시에 9개의 순서로 구성된 공 예배 시간에서의 봉독
- 52주간동안 주일 오후 예배 혹은 설교에 사용할 주제

하이델 베르크 교리서는 129조항으로 되었고, 그리고 52주로 나누어져 있기에 매주 교회에서 사용하기에 아주 편리하도록 구성되었다. 이 교리서는 로마서의 순서에 따라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처음 두 문항은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제일부는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다루는 것이고(문 3-11; 롬 1:18-3:20), 제이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것으로(문 12-85; 롬 3:21-11:36)이다. 마지막 제삼부는 구원에 대한 감사 혹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부분이다(문 86-129; 롬 12-16). 제이부가 가장 큰 부분이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소제목으로 사도 신경을 다루고

있다. 제삼부는 십계명과 주기 도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순서는 기독교의 신앙의 삼단계 즉 회개, 믿음, 사랑의 순서와 비교될 수 있다.

하이델 베르그 교리서의 문항들 가운데서 문 21은 믿음에 대한 것이고, 문 27과 28은 섭리, 문 31과 문 32는 '기독교인들'이란 명칭에 대하여서, 문 49는 승천에 대해서, 문 60번은 믿음에 의한 칭의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다. 예를 들면 제 21문의 믿음에 정의는 다음과 같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아는 어떤 지식을 말할 뿐 만 아니라, 성령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전심적(全心的)인 신뢰를 말합니다. 그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위한 순전한 은총에 의해서 죄의 용서와 영원한 의와 구원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이 교리서는 객관적인 진리를 근거로 하여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 기독교적인 경험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이것은 2인칭을 사용하여 질문하고, 1인칭을 사용하여 답변하는 문체에서 표현된다. 예를 들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다"라는 표현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문답은 독자들로 하여금 확신에 이르도록 한다. 따라서 이 교리서는 기독교의 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인 교훈들을 가르치고 있다.

하이델 베르그 교리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문 29)에서 혹은 그의 말씀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문 25, 99, 117)이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인간의 신앙의 경험과 관련하여서, 혹은 인간의 구원과 관련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미래의 신학"(not yet)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제 1문에서 나타난다: 인간의 생사에 있어서 오직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위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아직은 아닌 미래 지향적인 것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이 교리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미래의 계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도록 인도하고 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하이델 베르그는 우주적이고, 복음적이며 그리고 개혁주의적이다. 사도들과 초대 교회의 전통에 근거하고 있으며, 독일과 불란서의

종교 개혁의 열매이다. 이 교리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리스도 중심의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택과 제한된 구원을 가르치고 있으나, 다른 개혁주의 전통들에서 볼 수 있는 유기(reprobation)는 생략하였다.

교회사가 샤프(Shaff 1977:540)는 하이델 베르그 교리서는 두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청소년들에게 종교적 교훈에 대한 안내서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의 신앙 고백에 대한 안내서라고 말하였다. 교리서로서 이보다 더 훌륭한 교리서는 없고 그리고 개혁주의 교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약점이 있다면 칼빈주의가 간접적 혹은 우회적으로 표현되었고 답이 길어서 어린이들이 암송하기에 좀 힘이 든다.

하이델 베르그는 철저히 성경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그래서 "철저한 성경적"이고 평가를 받지만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웨스민스터 소요리 2문은 성경의 권위를 언급하고 있다.

(3) 도르트 정경(Canons of Dort)

도르트는 네델란드의 한 도시 이름이다. 이 도시에서 1618년 11월에서 1619년 5월 사이에 네델란드 국가가 소집한 종교 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를 도르트 회의(Synod of Dort)라고 부른다. 유럽의 개혁주의 교회들이 참석하였다. 네델란드, 독일 그리고 스위스 교회 대표들의 참석하였고, 불란서의 왕의 반대로 인해서 불란서 대표들은 회의에 참석하지를 못하였다. 이 회의의 주된 안건은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제기한 5가지 항목을 다루기 위해서. 이 회의는 이 다섯 가지 안건 모두를 거절하고 칼빈주의를 재 확인하였다.

네델란드 라이덴 대학교 신학교 교수인 제이콥 알미누스는 원래는 칼빈주의자였다. 그는 칼빈주의를 반대하는 자에 대항하여 칼빈주의를 변호하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인간의 자유 의지와 우주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칼빈주의를 포기하였다. 그의 사후에 그의 후계자들이 다섯 가지의 항목을 "항의문"(Remonstrance)이라는이름으로 1610년 네델란드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알미니안 혹은 알미니아주의자 혹은 레몬 스트랜트라고 불리운다. 이에 대응하여서 칼빈주의자들이 "반박문"(Counter-Remonstrance)을 발표하기도 하다가 1611년부터 그 이후에 몇 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합의점을

언지를 못하다가 도르트에서 회의가 열렸다.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제기한 다섯 가지 항목이 성경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면서 칼빈주의를 배격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조건적 예정설: 선택과 유기는 인간의 믿음과 불신(foreseen faith and unbelief)에 근거한다.

② 만인 구원설: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구원을 얻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간 개개인을 돌아가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구원의 길로 가는 가능성을 열었다.

③ 구원으로 이르는 믿음: 인간은 타락하여서 성령님의 역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지 않은 이상 인간은 선한 일을 할 수도 없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도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인간의 자유 의지에 의존한다. 즉 인간이 구원을 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④ 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자유 의지를 가진 인간은 성령님의 부르심을 저항할 수 있다. 인간이 믿기 이전에는 성령님은 죄인을 새롭게 할 수 없다.

⑤ 성도의 견인의 불확정성이다: 믿음을 가지고서 구원을 입은 기독교인이 믿음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에 대항하여서 도르트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이를 "칼빈주의의 오대 항목"(the five points of Calvinism)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한 다섯 항목의 영문 첫 글자를 따서 네델란드의 국화인 튜립(TULIP)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다음과 같다:

⑥-1. 인간의 전적인 부패 혹은 무능(Total Depravity or Total Inability): '전적'이란 의미는 '절대적'이란 의미와는 다르다. '절대적 부패'란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전적 부패'란 소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이는 타락으로 인해서 오는 죄로 인한 인간의 영적인 죽은 상태를 말한다. 이 상태에서는 인간은 영적으로 선한 일을 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비교적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선한 일이 될 수가 없다. 이 상태에서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악이며 죄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인간의 무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은 선

한 일을 할 수도 없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이해도 못하며, 선한 일을 할 의욕도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행 5:31; 엡 2:8,9). 이 전적 부패 혹은 전적 무능은 창 6:5; 렘 17:9; 8:21; 막 7:21-23; 롬 8:7-8; 엡 4:17-19 딤후 1:15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⑥-2. 무조건적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전 계획을 포함한다. 우주가 우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며 (foreordination), 인간의 구원(heaven)과 영락(hell)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존한다 (predestination). 무조건적 선택이란 인간의 어떤 자질 혹은 특성을 근거로 하여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권을 가지고서 인간을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를 보시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인간을 선택하신다고 하는 조건적 선택을 주장한다. 즉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신다는 것이다.

구원에 이르는 인간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예정된 것이다. 인간의 순종, 믿음 혹은 회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로 주어지는 선물인 것이다. 그리고 이 선택은 불변하며 영원한 선택이며 선택된 인간은 확실한 구원에 이른다. 이로 인하여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항상 영광을 드려야 한다. 무조건적 선택은 요 6:37, 39; 요 15:16; 행 13:48; 살후 2:13; 엡 1:4, 5; 롬 8:29, 30, 롬 9:6-26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⑥-3. 제한적 구원(Limited Atonement): "제한적"이란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이 유한하고 제한적이란 의미는 결코 아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은 무한하며, 무제한적이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구속 사역에 있어서 충분하다.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써만 구원이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서 "제한적"이란 의미는 구속의 범위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의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와는 반대로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만인 구원설을 주장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심지어 에서와 가롯 유다를 포함한 세상 모두를 위한 대속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수의 사람"만이 구원의 길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믿음은 인간의 행위"로 간주하고, 이 믿음에 의한 구원을 주장한다. 이들에 의하면 인간의 구원은 가능성에 불과하다. 요약하면 은혜의 선물인 믿음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의한 구원을 주장하고 있다. 서론에서 밝힌대로 쾰바르트도 이 주장을 수용하고 있다.

제한적 구원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소수의)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혹자는 이 교리가 복음 전파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도 한다. 그들에 의하면 선택받은 사람은 언젠가는 구원의 길로 돌아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 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처에 있고 이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하신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제한적 구원은 행 20:28; 요 10:7-18; 롬 5:12-21; 8:32-34; 갈 1:3-4; 엡 5:25-27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⑥-4.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저항적인 하나님의 은혜(Irresistible Grace): 은혜란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가운데서도 사랑과 호의를 받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무저항적"이란 죄인이었던 인간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름이라고도 한다.

성령님의 외적 부르심은 선택받은 사람이든 선택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든 지 간에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진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길로 이른다는 복음은 성령의 외적 부르심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부름을 거절할 수가 있다. 그러나 성령의 내적 부르심은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성령은 죄로 죽은 자들을 불러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한다. 그리하여 이 부름은 선택 받은 자들로 하여금 구원으로 이르게 하

는데, 아무도 이 내적 부름을 거절하지는 못한다. 반대로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이 회개하여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는 성령의 은혜를 "조언의 은혜"(advising grace) 라고 부른다. 이 조언의 은혜로써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는 없고 인간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한다. 요약하면 무저항적인 은혜는 구원은 성령의 내적 부름으로 인한 사역으로서 이것을 아무도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요 1:12,13; 롬 8:14; 고전 2:10-14; 엡 2:1, 5; 벧전 1:2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⑥-5. 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Saints): 이는 선택 받은 자는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인내를 가진다라는 교리이다. 즉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성령에 의해서 재창조가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항상 구원을 얻는 것이 보장되어있다. 일단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는 항상 그리스도 연합한다. 아무도 이 연합을 파괴하지는 못한다. 이와는 반대로 알미니안 주의에 의하면 성도가 일단 구원을 얻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 구원을 잃어버릴 경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반복되어질 수도 있다.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요 5:24; "b전 1:4, 5; 롬 5:8, 9; 요일 3:9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요약하면, 알미니안 주의에 의하면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하여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만인 구원설이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인간은 이에 대해서 반응할 때 구원은 이루어 지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과 협력하고 하나님이 제공하는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 이것을 믿음이라고 칭하며, 이 믿음에 의해서 비로소 인간은 구원으로 이른다라는 것이다. 구원에 있어서 행위의 구원 즉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도르트 회의에서 결정한 칼빈주의적 구원은 전적으로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돌아가셨으며,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선택된 자들을 믿음과 회개로 인도하고 더 나아가서 복음에 순종하도록 하신다. 여기서 믿음이란 인간의 반응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

이다. 선택과 구원과 재창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심을 강조하는 교리이다.

1-2. 웨스트 민스터 표준서

(1) 웨스트 민스터 회의

의회 없이 통치하기를 원했던 찰스 1세(1625-1649)와 영국 의회 사이에 내란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의회는 종교 개혁을 계속 추진하였다. 의회는 영국 교회에서 예배 모범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 교회 정치와 권징 조례를 만들어서 영국 교회와 스코틀랜드 그리고 해외의 개혁주의 교회와 일치되도록 할 교회 체재를 수립하기 위하여 런던의 웨스트 민스터 사원에서 1643년 7월 1일 토요일부터 회의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였다. 회의는 이때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계속되었는데 5년 6개월간의 회의였다.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하고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혹은 2시에 회의를 열었고 오후에는 위원회가 열렸다. 이 기간 중에 1163호의 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당시에 일당 4실링을 받았다. 이후에도 상임 위원회는 목사 지망생들을 위한 시험과 안수를 위해서 크롬웰이 의회를 해산하기까지인 1652년 3월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의 참석자는 의회가 선출한 121명의 성직자들과 10명의 상원 의원과 20명의 하원의원들로 구성되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교회 총회에서 8명의 대표를 선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파송하였다. 모인 모든 참석자들의 신학 노선에 대해서는 알미니안, 펠라지안 그리고 안티노미안 주의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다. 견해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가 다 철저한 칼빈주의자들이었다. 리처드 박스터는 웨스트 민스터 회의의 참석자는 아니지만, 회의에 모인 참석자들은 학식이 있고, 경건하고 목회의 능력과 책임성을 가진 분들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웨스트 민스터 회의는 독립성을 가진 종교 협의회도 아니고 따라서 아무런 권위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회의는 국회의 의해서 소집된 하나의 협의 기구

이다. 모든 결정은 의회가 하도록 하였다. 심지어 여기서 작성된 신앙 고백서도 "겸손한 조언"(Humble Advice)이란 이름으로 의회에 상정되었다.

이 회의는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웨스트 민스터 표준서인 웨스트 민스터 신앙 고백, 대 소교리 문답서를 비롯하여서, 교회 정치 및 권징 조례, 예배 모범을 작성하였다. 이것은 뒷날 영미 장로 교회 신앙의 표준이 되었으며 오늘날 한국 장로 교회에서 이 표준서를 교리의 기준서로서 사용하고 있다. 회의 기간 중 가운데서 가장 논란이 있었던 것은 교리와 예배 모범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정치와 권징 조례에 대한 것이었다. 진리를 세우는 것은 쉬우나 진리를 적용 실천하는데 있어서는 견해가 상이하였고, 이것은 오늘날 한국 장로 교회의 분열상에서 그리고 사실상 권징이 교회에서 사라진 것에서도 볼 수가 있다.

이 회의의 약점은 기독교를 국교의 관점에서 동일한 교리와 예배 그리고 권징이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표준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당시에 국가(왕 혹은 의회)가 이런 종교 회의를 주도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였다. 그러나 샤프 (Shaff 1977:730)는 이것은 "시대에 기인한 실수"(the error of the age)라고 기술하고 있다.

(2) 신앙 고백서

신앙 고백서는 웨스트 민스터 회의 기간중인 1644년 8월 20일 고백서 작성을 위한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그리고 1646년 12월 4일에 고백서가 완성되어서 의회에 상정되었다. 2년 3개월이란 기간이 소요되었다. 고백서를 접수한 의회는 심사와 수정을 거쳐서 1648년 6월에 의회에서 공식 고백서 채택되었고, 크롬웰 사후에 다시 1659년에 공식 고백서로 채택되었다.

웨스트 민스터에 나타난 신학은 철저한 칼빈주의이다.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신학이다. 특히 예정론과 성례에 대해서는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이 신앙 고백서가 칼빈주의적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서에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는 신앙고백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칼빈은 성령의 사람이었으나 "기독교 강요"에서 그는 성령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행위자로 가르치고

있다. 고백서에서도 성령은 교회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해서 언급되고 있다.

웨스트 민스터 신앙고백의 신학은 언약신학에 근거하고 있다(Warfield 1931:56).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행위위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안에서 은혜의 언약을 만드셨다. 신앙 고백서는 구원의 서정(ordo salutis)에서 소명, 칭의, 양자, 성화 등은 언약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고, 믿음, 회개, 선행, 견인, 확신은 언약으로 인해서 인간으로부터 요구하는 의무인 것을 기술하고 있다.

개혁주의 어느 전통과는 달리 제1장에서는 성경의 필요성과 권위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이 당시에 교회의 가장 큰 관심사인 여러 신학 사조가 성경에 대한 다양한 견해에 근거하였기에 성경관을 확립하고자 하는 의도에 기이한 것으로 여겨진다(Murray 1982:243).

웨스트 민스터 신앙고백은 총 33장으로 구성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질 수 있다.

① 성경과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분의 사역(제 1장-제5장): 인간 구원 역사에 있어서 성경은 가장 필요로 한 책이며 이의 권위는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성경은 완전하여 최종적인 종결성을 가지고 있다. 즉 보충되어질 필요가 없으며 종교의 논쟁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로마교는 교회의 무오한 가르침을 주장한다. ①-1. 성경에 대해서 ①-2. 전통에 대해서 ①-3. 성경과 전통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①-4.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참된 적용 등에 대해서 교회가 결정을 한다. 이와는 반대로 개신교는 성경은 믿음과 생활의 기준이 되면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권위보다 우위에 있다고 가르친다.

성경은 성경에 의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양한 해석이 아니라 하나의 해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풍유적 해석, 문자적 해석, 신비적 해석, 영적 해석을 배격하고 성경 문맥을 고려한 해석을 하도록 주장한다.

② 인간, 죄,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제6장-제18장): 첫째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과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의 방법에는 차이가 없음을 밝힌다. 즉 구약은 율법을 통한 구원을 말하고 신약은 믿음에 의한 구원을 말하는데 이 두 사

이에는 차이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구약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약속하고 신약을 그 약속의 성취를 설명하는데 율법의 목적은 행위에 의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구세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술하고 있다.

③ 율법과 인간의 자유와 의무(제19장-제24장): 첫째, 구약에 나타난 의식이나 정치형태는 당시의 적용대상이지만 윤리는 기독교인의 생활 속에서 반영되어야 함을 기술하고 있다. 즉 구원은 믿음에 의해서 오는 것이지만 여전히 율법은 기독교인들의 윤리의 지침서임을 설명한다. 둘째, 기독교인들은 양심의 자유를 가지는데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셋째,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넷째, 간음에 의한 경우만 이혼을 허용하고 있다.

④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정치(제25장-제31장): 첫째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제25조 2항). 교회의 형태로서 유형교회 무형교회를 설명한다. 전자는 지상의 교회를 지칭하고 후자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들만의 모임을 의미한다. 둘째, 성례식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성된 사역, 참된 신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확증, 세상과 분리하는 표증,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외형적인 표시임을 기술하고 있다.

⑤ 종말론(제32장-제33장): 예수그리스도의 오심과 마지막 심판, 하늘과 지옥을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정하셨으나 아직 우리에게 계시하시지는 아니하셨다. 이 날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 마지막 심판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항상 경건하게 그리고 준비하는 가운데 그리고 소망과 기대의 확신 속에서 생활하도록 인도한다. 로마교에서 말하는 하늘과 지옥 사이의 제삼의 장소는 없다. 그리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소서! (Come, Lord Jesus, Come Quickly)라고 고백서를 끝맺는다(제33장 3조).

웨스트 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전통적인 신경과 고백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언급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복음 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다. 웨스트 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복음 전파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은 그 결과인 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1658년에 크롬웰이 소집하여, 영국의 사보이에서 열렸던 종교 회의가 채택한 사보이 헌장은 웨스

트 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개정하여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확장에 대해서"란 장을 할애하고 복음 전파에 대해서 기술 하였다.

이 고백서는 성령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칼빈이 성령님을 하나의 도구로 간주하는 바람에 성령님은 비인격화로 이해되어지기 쉽다. 따라서 칼빈주의 영향을 받은 이 고백서에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없다. 성경에는 성령님과 그의 사역에 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다. 그리하여서 만약에 이 고백서가 삼위 일체 형식을 빌어서 작성되었다면 성령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것이라라는 주장도 있다(Heron 1982:53). 성령과 복음 전파에 대해서 기술하지 않은 이 신앙 고백서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1903년 미국 장로교는 제 34장 성령, 제 35장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에 대하여서 두 장을 첨부하였다.

(3) 대교리 문답서

이 대요리 문답서는 소교리 문답서보다 일찍이 작성되었고 1648년 7월 20일 에딘버러에서 열린 총회에 의해서 인준되었다. 전체 196문항과 답으로 구성되었다. 처음 다섯 문항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제 6-90문항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91-196 기독교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의 특성은 신앙 고백서의 윤리 부분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주석 역할을 하고 있다. 대교리 문답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이다.

(4) 소교리 문답서

소요리 문답은 1648년 7월28일 에딘버러 총회에서 인준을 받았다. 그리고 신앙 고백서와 대요리 문답과 함께 이 소교리 문답서도 1690년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인준을 받았다. 이 소요리 문답서는 전체 10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단문으로 구성되어서 읽기에 비교적 용이하다. 구조는 신앙 고백서의 순서를 따랐지만 신앙적 정의는 간단 명료하다. 가장 핵심이 되는 질문은 제 1항이라고 보수 있는데 이는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며 그리고 영원이

그분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41-81은 십계명을 다루고 있다.

① 개혁주의 연합을 위한 세 개의 문서와 웨스트 민스터 표준서의 비교

이 두 문서들은 그들의 신학에 있어서나 교회를 위한 중요성에 있어서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으니 이들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표준서를 승인한 도르트 회의는 유럽의 대부분의 개혁주의 교회들이 참석하여서 일종의 에큐메니칼 회의라고도 부를 수 있다. 웨스트 민스터 회의에서는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교회에서만 참석하였다. 그러나 리차드 박스터는 웨스트 민스터 회의의 참석자는 아니지만, 사도 시대 이후에 도르트 회의와 웨스트 민스터 회의가 가장 훌륭한 종교 회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Shaff 1977:729). 이 두 회의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개혁주의 교리를 정립하였다는데 있어서 의미가 깊은 회의였다.

연합을 위한 세 문서와 웨스트 민스터 표준서는 신학적으로는 서로 다른 점이 없다. 모두가 다 철저한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있다. 차이점은 도르트 회의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 주의의 논쟁에서 "다섯 항목"에 국한하여 신학을 토론하였으나, 웨스트 민스터 회의에서는 신학의 전분야를 다룬다. 성경의 권위를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부터 마지막 심판까지를 다루고 있다.

개혁주의 연합을 위한 세문서는 종교 개혁이 한창 전개되어지고 로마교 정부의 핍박이 가해질 때 작성된 것으로서 개인적인 신앙 승리의 경험을 표현하고 있다. 이점에 있어서는 특히 벨직 신앙 고백서가 가장 두드러진다. 반면에 웨스트 민스터 표준서는 개혁주의 교회가 승리를 얻고 그리고 핍박이 사라진 후에 작성되었다. 즉 첫 개신교 종교 회의라고 불리울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객관적이고 추상적인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개혁주의 연합을 위한 세 문서는 일상 생활의 용어를 사용하여 감정적이며, 반면에 웨스트 민스터 표준서는 교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더 학문적이며 지적이다. 따라서 간략 명료한 것은 사실이다.

2. 이들 입문서의 중요성

개혁주의 표준서와 웨스트 민스터 표준서가 정확 무오한 것은 결코 아니다. 전술한 것처럼 약점들이 없지는 않다. 첫째는 성령의 언급이 거의 없다. 이 두 표준서들을 작성한 장본인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으나 즉 성령론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둘째는 선교와 전도를 포함한 복음 전파에 대해서도 언급을 회피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의 시대를 반영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면 현대 개혁주의 교회 건설을 위해서 이 교리서들은 여전히 필요한 것인가? 현재까지 이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어 왔고, 그리고 복음주의 교회 건설이라는 깃발 아래 사실 이 교리서들은 무시되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교리서들은 현대 개혁주의 교회 건설을 위해서 여전히 필요하다. 개혁주의 교회 건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교리적으로, 현대 개혁주의 교회 건설을 위해서 이 교리서들이 필요하다. 이 표준서들은 성경에 나타난 교리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교리들은 칼빈주의라고 불리우는데 어저스틴, 칼빈,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어왔던 교리이다. 오늘날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웨슬리안주의 등을 다 포함하는 소위 복음주의자들은 이 교리서들을 수용하는 대신에 반대하지 않든지 최소한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복음주의와는 분명히 달리한다. 이 표준서들의 신학은 칼빈주의적 복음주의에 속한다. 이 두 표준서들은 전혀 수정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칼빈주의적 개혁주의는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한다. 알미니안 주의는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인간의 반응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에 의하면, 믿음도 인간의 행위에 불과하다. 이런 믿음에 의한 인간 구원은 결국은 인간의 행위에 의한 구원을 주장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칼빈주의는 믿음은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주장한다. 즉 선물인 믿음에 의한 구원을 주장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한다. 이 입문서들은 성경적인 교리들을 다루고 있다.

성경 교육을 위해서, 이 교리서들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이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이델 베르그 교리서의 목적에 나타난다. 성경은 문화와 역

사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해석이 필요하다. 이 교리서들에 나타나는 성경의 주제들은 시간과 문화의 제약을 받지 않는 객관적인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교리서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성경의 권위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한다. 복음주의라는 깃발아래서 현대 교회의 기초는 교리주의 신학 토대에서 영성주의 신학 토대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영성주의 신학을 부정하거나 반대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말하는 입문서 작성자들이나 이 작성을 위해서 회의에 참석했던 종교개혁자들은 성령의 사람이었고, 그들의 생활은 순교자적인 영성주의에 근거해 있었다. 오늘날 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이런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영성이란 항상 불안하다. 경험주의 신학과 신앙으로 치우칠 경향이 많이 있다. 그리고 교리의 약화로 인해서, 해석자의 해석 즉 교회의 해석을 수용하다 보니 성경의 권위가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 즉 "위로부터의 권위"(from above)보다는 "아래로부터의 권위"(from below)를 주장하게 된다.

성경 해석학적인 면에서, 이 입문서들은 성경 해석을 위한 기준을 제공하여 준다. 오늘날의 종교 다원화 시대에 성경의 다양한 해석이 인정된다. 해석자의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그의 신학배경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해서 해석자의 의도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는다. 개혁주의 교회 건설을 위한 입문서들은 정확 무오하지는 않으나, 칼빈주의적 개혁주의에 근거한 성경 해석을 위한 하나의 기준을 제공하여 준다. 여기서 해석자란 설교자들 까지를 포함한다.

교회사적으로 이 입문서들이 현대 개혁주의 교회 건설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 교리들은 지난 수백년 동안에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 교리들을 포함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그리고 교회는 이 교리들 위에 굳건하게 서 있다. 과거의 성공은 미래의 성공을 보장한다. 그러나 실용주의 (Praxis)를 강조하고 교회의 수적 성장과 고난대신 번영과 풍요를 강조하는 소위 현대 신학의 영향으로 개혁주의 교회들이 약간의 침체에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리하여서 현대 교회주의자들은 교리는 교회 성장에 저해 요인은 아닐지라도 성장에 그렇게

유용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게다가 현대는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는 시대이다. 이 시대 상황에 맞게 현대 교회가 이들 교리서들에 나타난 교리들을 수용할 수 없어서 대신 새로운 교리들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이는 비성경적인 교리들을 가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교회 연합을 위해서, 이 입문서들이 현대 개혁주의 교회 건설을 위해서 필요하다. 같은 개혁주의 입문서를 사용하면서도 분열할 수 밖에 없는 한국 교회는 예외이지만 교회 연합을 위해서 이 교리서들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 장로 교회도 이 동일한 입문서를 사용하기에 연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 남아공에서는 장로교와 회중 교회가 이미 연합하였고, 인종차별로 인해서 분열되었던 개혁주의 교회들이 어려운 길이지만 연합을 시도하고 있다.

변증과 전도를 위해서도 이 교리서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복음은 분명코 하나이지만 종교의 다원주의 살고 있는 오늘날에는 거짓 가르침이 다양하게 전파된다. 일상 생활에서 당면하고 있다. 남아공의 "사도들의 개혁주의 교회"를 비롯한 몇몇 군소 교단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자기네들만이 구원의 길로 이른다고 주장한다. 이런 거짓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변증하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이 교리서들은 필요하다.

끝으로, 이 입문서에 나타난 교리들이 시대와는 부응되지 않기에, 새로이 수정되어야 한다면, 새로운 어려움들이 제기되어지고 그리고 수정은 또 수정을 불러 일으킨다. 따라서 이 수정의 과정은 끝날 날이 없을 것이다. 인종 차별을 반대하여서 남아공에서 1980년대 초에 "벨하 고백서"가 채택되기는 하였으나 이것은 교리를 요약한 "연합을 위한 세 문서"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백인 위주의 성경 해석을 반대하는 교회의 고백서이다. 현대 개혁주의 교회 건설을 위해서 이 입문서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III. 결론

칼빈주의적 개혁주의 교회 건설은 적어도 한국 교회의 지상 과제이다. 특히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지상 과제이다. 이 개혁주의 입문서들은 사도들과 어거스틴을 비롯한 초대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칼빈이 체계화한 교리로서 성경적인 교리이다. 이 개혁주의는 "연합을 위한 세계의 표준서"와 "웨스트 민스터 표준서"에 간단명료하게 잘 표현되었다. 그리고 두 입문서들은 서로 보충한다. 예를 들면 도르트 신경은 알미니안주의의 다섯가지 주장들에 반대한 소위 "칼빈주의 오대 교리"(the five points of Calvinism)를 다루고 있는 반면에, 웨스트 민스터 표준서는 성령과 선교에 대한 기술에서는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성경의 전 분야에서 교회가 필요한 주요 교리들을 다루고 있다.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가 부흥되지 못한다고 모두들 말하고 있다. 한 번 신학적으로 조명해 볼 필요도 없지는 않다. 만약에 이것을 교리서에서 찾고자 한다면, 전도 부분이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교리서는 위에서 말한 바대로 정확 무오한 것이 아니라, 정확 무오한 성경으로 항상 돌아갈 것을 제시한다. 그래서 성경대로 목회를 하는데 부흥이 안될리는 없다.

칼빈주의적 개혁주의에 근거한 교회 건설은 우리의 지상의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그리고 더구나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성경이 말하는 교리를 분명하게 알고 전하기 위해서는 개혁주의의 "교회 연합을 위한 세 문서"와 "웨스트 민스터 표준서"보다 더 좋은 입문서는 없다고 본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참고문헌

이현찬 2000. *김치하나도 포기 못한 선교사: WEC 국제선교회 한국본부장 유병국선교사*. 월간고신 2월호, 29-33.

Boice, J M & Sasse, B E 1996. *Here we stand*. Grand Rapids: Baker Books.

De Jong, P Y 1980. *The church's witness to the world*. Ontario: Paideia Press.

Green, C (ed.) 1991. *Karl Barth: Theologian of freedom*. Minneapolis: Fortress Press.

- Heron, A I C 1982 (ed). *The Westminster confession in the church today*.
Edinburgh: The Saint Andrew Press.
- Hodge, A A 1869. *The confession of faith*.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 Murray, J 1982. *Collected Writings of John Murray: Studies in theology*. Vol 4.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 Palmer, E H 1972. *The five points of Calvinism*.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 Petersen, H 1968. *The Canons of Dort: A study guid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 Schaff, P 1977. *Creeds of Christendom*. Vol 1.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 Shed, W G T 1986. *Calvinism: Pure & Mixed*.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 Steele, D N & Thomas, C C 1963. *The five points of Calvinism: defined, defended,
documented*.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 Van Baalen, J K 1948. *The heritage of the Fathers*. Grand Rapids: Eerdmans.
- Warfield, B B 1931. *The Westminster assembly and its w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White, J H 1978. *The book of books*. USA: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 Youngblood, R (ed.) 1984. *Evangelicals and inerrancy*. Nashville: Thomas Nelson
Pub.
- Young, E J 1957. *Thy word is truth*.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